

## ■ 세이버협회

한국세이버협회에서는 캐나다 세이버 본사의 부사장 로버트 그레이(Robert Gray)씨와 수의 부문에서 20년간 종사한 당사 수의담당고문 오토(Otto Weneinger) 박사를 초청하여 오는 5월 29일 가금질병과 양계의 경영 방법에 대하여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매년 수회씩 강연회를 열어 외국의 저명한 학자 혹은 실무자의 유익한 강연을 베푸는 당 협회의 이번 강연회도 크게 기대된다.

## ■ 서울부화장

지난 3월 31일 서울부화장(천호동 397-96)은 종업원의 실화로 부화장과 시설을 소실하였다. 그러나 증계장 및 증계(바브록·필취)의 피해는 없었다. 당 부화장의 대표 윤경중씨는 이번 실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양계가들에게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며 확장 복구한 서울부화장을 여러 양계가가 더욱 애호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 ■ 사료협회

지난 3월 28일 사료협회 회의실에서는 사료 자원 개발 이용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관계 학자 및 업계 대표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본 간담회에서는

① 사료첨가제의 수급 실태와 적정 사용수준 결정에 관한 조사 연구(오봉국, 김춘수, 한인규, 오세정 담당)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첨가제의 개발 및 선택을 위하여 품질의 향상과 사료첨가제의 실질적인 원가 절하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으로서 약 900,000원의 예산이 잠정 결정되었다.

② 닭털과 닭내장의 가식분을 사료성분으로서의 실용성에 관한 연구(김춘수 담당).

도입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 배합사료업계의 크나큰 부담, 특히 단백질사료의 도입가격 앙등에 따른 국내 자원개발을 타진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되지 않는 닭의 내장과 닭털의 사료화를 연구하여 비싼 사료성분의 원가 절하 및 대체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③ 조사료 성분 분석자료 정리에 관한 조사 연구(한인규 담당).

국내의 목초와 야초 등에 대한 국내의 여러 분석표를 수집 정리, 성분분석표를 작성한다.

④ 유우에 있어서 요소 및 당밀의 활용성에 관한 조사 연구(김춘수, 윤희섭 담당).

⑤ 유우 및 유제품의 유통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상기와 같이 결정되었다.

## ■ 신제품 개발

유한양행에서는 현재 시판하고 있는 항 콕시들펀계 조믹스(Zoamix) 외에 새로이 미국 다우 케미칼회사의 항 콕시들펀제인 코이덴(Coyden)을 수입 시판할 예정인데 본제는 항 콕시들펀계수 가 조믹스보다도 훨씬 높다고 한다.

## ■ 서울사료공장 준공식

서울사료공장은 예정보다 약 3개월 늦게 지난 4월 1일 공장 준공식을 가졌는데 본 준공식에는 주주를 비롯한 양계업계 인사가 참석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 ■ 중앙축산 수원공장 가동

중앙축산은 그동안 건설 중이던 수원공장(수원시 정자동 535-1, TEL 2-5996)을 준공하여 지난 3월에 가동하였다.

일산 100톤 규모의 본 공장은 350톤의 옥수수를 배정 받고 부모일터 사료를 중점 생산하여 중앙축산의 판매조직이 비교적 미약한 중부 이남지방을 개척할 예정이다.

## ■ 한국비타민

미국본사 국제담당 부사장 Spellman박사가 연달감사차 부인 동반으로 지난 4월 5일 10일 체류 예정으로 방한하였다.

## ■ 북부사료

북부사료 사장 장기신씨가 지난 3월 16일부터 10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사업 확장에 따른 업무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 ■ 영육농장

영육농장 사장 김영희씨가 4월 중으로 일본 미국 등의 업체 시찰차 출국하였다.

## ■ 한국카아길

전 천일곡산 기사 허환영(서울농대 대학원 졸업)씨를 특채 한국카아길 수원공장의 품질관리 책임자로 임명 발령했다.

## ■ 대한신약

대한사료에서 대한신약으로 신 발족함과 아울러 기존 수유리 공장을 정리하고 새로이 마포구 망원동에 대지 600평, 연건평 400평의 신공장을 신축하여 4월 11일 이전했다.

신공장의 준공 후 첫 개발 품목으로 「테라마이신 고농도 안티집(Antigerm)」을 4월 중순경부터 시판하리라 하는데 이 제품은 테라마이신과 카치온계 소독제의 합제로서 음수소독을 겸한 질병예방제로 질병 발생시 혹은 스트레스기에 소독제를 따로이 투여하던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양계업자들의 기대가 크다.

## ■ 퓨리나코리아

우리 나라의 사료부문 중의 첫 외자도입체인 퓨리나사료는 지난달부터 공장 생산규모를 배가하여 1일 8시간 가동으로 160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단일 생산공장으로 월 3,000톤 규모의 판매를 지향하고 있는 본 퓨리나사료의 비약적인 발전(약 1년반 전에 시판 시작)은 국내 사료공장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더우기 지난 3월에 방한한 바 있는 미국 퓨리나 본사 랄스톤 퓨리나(Ralston Purina)의 사장은 금년 중으로 늘어나는 배합사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산에 현 공장 규모의 새로

운 공장을 세울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외자도입업체의 배합사료 생산량을 증가한다면 금년말에는 전체 배합사료(양계) 생산량의 20%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천일곡산

배합사료회사인 천일곡산은 기존 실험실의 확충과 푸리믹서의 설치로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 사료첨가제 제조업자로 등록하였다. 사료회사의 사료첨가제업자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며 실제 사료첨가제의 원가를 줄이기 위한 첫 시도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 ■ 삼우화학

사료첨가제 메이커 삼우화학(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36-6, TEL 62-1409)은 새로이 종합 사료첨가제 비타톤을 개발하여 4월 중으로 시판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20여종의 비타민군과 미량광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이미 축산시험장에서 실험하여 그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 ■ 한인규박사—세계초지학회 참석

지난 4월 8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본지 편집위원장) 한인규박사는 오는 4월 18일경에 호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초지학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동학회에서 한박사는 한국의 초지형성문제에 관하여 약 1시간의 세미나를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 ■ 한국가금협회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신촌에 있는 축협회의실에서 4월 양계강습회를 갖었다. 그런데 다음 강습회는 5월 2일 같은 장소에서 있다고 한다(월간양계 5월호 P.79참조)

또한 동협회에서는 늘어나는 업무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서울농업대 수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정우씨를 기용 발령했다.